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강화해야” 강은미

진선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저조” 송경중 “광산교육지원청 설립을”

■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광주시의회는 21일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밝혔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송경중(민주·광산 4)·진선기(민주·북구 1)·강은미(정의당·서구 4) 의원이 나서 광산교육청 설립,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방사능 오염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제한 대책 등을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식품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제도적인 여과장치가 없다”며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녹색당이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방사능 측정기 구입 여부와 식품방사능 검사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광주시 교육청은 식품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학교급식 방사능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 지자체가 방사능 오염이나

안전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제도적 방비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10개 학교 10개 품종 9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능 불검출 통보를 받았고, 지난 7월 의원 발의로 ‘광주시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선기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시 교육청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1만2000여명으로, 서울 6만8000여명, 부산 3만9000여명, 대구 3만8000여명, 인천 4만3000여명, 대전 2만3000여명, 울산 2만여명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초·중·고 학생들의 끼와 재능,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정규교과 외에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송경중 의원은 “광산구는 광주로 편입되면서 교육지원청이 없어지고,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되면서 과밀학급 등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며 “광주시 교육청이 국회에 건의해 광



강은미 시의원



진선기 시의원



송경중 시의원

산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특례규정을 제정해야한다”고 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광산구 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은 광산지역 학부모와 학생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광주시 전체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시민의 열기를 모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한국 최초 우주인 美서 MBA중”

이소연 후속 연구 이어지지 않아 ‘일회성’

최재천 의원 국감서 지적

260억원을 들여 추진했던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이 결국 일회성으로 끝나고 후속 연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21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공우연)의 우주인 배출사업이 지난 2008년 끝난 뒤 후속연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주인 배출사업은 한국 최초 우주인 배출 및 유인 우주기술 확보를 위해 지난 2005년 11월 시작돼 2008년 6월까지 모두 25억 2200만원이 투입됐다. 항공우연은 후속연구로 우주인 활동 및 관리, 한국형 유인우주프로그램 개발,

마이크로중력 활용 유인우주기반기술 연구 등을 내세웠지만 5년 동안 후속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40억원 남짓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인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는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우주과학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MBA(경영전문대학원) 과정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박사는 항공우연 직원으로서 강연하면서도 강연료는 개인 수입으로 챙기고, 출장비는 항공우연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항공우연 측은 “MBA 과정은 우주인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업 수행 차원”이라면서 “대의 교육·홍보 활동도 이소연 박사 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후속연구로 우주인 활동 및 관리, 한국형 유인우주프로그램 개발,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차대통령 자서전 번역본

中·日·몽골서 출간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 번역본과 관련 서적이 중국과 일본, 몽골에서 출간됐다.

청와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8일 유라시아 국제협력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나자긴 바가반디 전 몽골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환담하면서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출간된 박 대통령의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몽골어 번역본을 선물했다.

바가반디 전 대통령은 서문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귀하, 대한민국 약속이 전부 이행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한글로 적었다.

차하야 엘벡도르지 현 몽골 대통령도 서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절 부친과 함께 서 있던 딸이 발전의 계주를 이어가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분의 자서전이 몽골 독자들의 손에서 읽힐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 책은 몽골 한국유학생협회(MAGIKO)과 주몽골 한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번역출판 사업의 결과물이다.

앞서 중국에서도 지난 3월과 5월에 걸쳐 같은 자서전이 각각 다른 역자를 통해 3권이나 중국어로 출간됐다

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北 산림황폐화 빠르게 진행

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05년, 2012년 북한 평양지역 산림 위성사진'



북한 평양지역의 산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5년에 비해 2012년 녹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산림황폐화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1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자격 지지”

시·도의회, 결의안 채택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는 21일 정회근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취소 촉구 결의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결의안에서 “고용부의 명령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고 이미 급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도 해고노동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조합원 자

격은 헌법의 노동 3권에 근거해 해당 노조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와 고용부의 권한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도 정경섭(구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이날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반노조법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데 교원노조법만 해직자를 불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9명의 해직자의 조합원을 문제 삼아 6만 조합원을 법의 노조화한다는 것은 노조탄압의 술수”라고 반발했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朴정부 대선 복지공약 이행해야”

문상필 시의원, 결의안 발의

광주시의회 문상필(민주·북구3) 의원은 21일 제221회 임시회에 ‘박근혜 정부 대선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복지공약 후퇴와 파기에 대해 상황논리로 모면하려 하지 말고 부자감세 정책 철회 등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는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표를



문상필 시의원

얻기 위해 공약을 제시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예측 잘못이라면 국가 재정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무능이고 알면서도 헛공약을 제시한 것이라면 국민을 기망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국정수행의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약속과 신뢰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인색

장일 도의원 주장

전남도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전남도의회(의장 김재우) 장일 의원(민주·진도·사진)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남지역 지역아동센터들이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따르면 이 지역에는 392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는 경기(735개), 서울(404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 하지만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규모를 보면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1곳당 3000원~5500원까지 지원하고



장일 도의원

있는 반면, 전남도는 도비 부담 없이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 여수와 구례, 해남, 영암은 3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아예 지원이 없으며, 간식비만 하루 1000원을 주고 있다.

장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들이 전국의 아동들과 동등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의 지원수준인 3000원 이상은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치매관리·지원 조례’ 제정

박철홍 도의원 발의

전남도가 21일 본회의를 통해 치매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치매관리·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박철홍(민주·담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역민의 치매 예방과 진료를 위한 비용 지원,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골자다.



박철홍 도의원

박 의원은 “전남은 노인 인구 증가율이 8.9%(3만8972명)나 되고 인구 비율로는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치매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치매를 개인이나 가정에만 맡겨두면 가정 파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1094㎡ 건물:4489㎡
감정가격:41억5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월출동 공장
대지:광주시소유 건물:2353㎡
감정가격:21억6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금남로4가 빌딩
대지:800㎡ 건물:4834㎡
감정가격:69억3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쌍암동 나이트클럽
대지:3238㎡ 건물:3090㎡
감정가격:89억7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흥중이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익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코모네티움 분양 사무실)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상가 매매

신축원룸

전대 상대 농대 입구 1부

룸11개 4층 주택가능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상가 1개, 원,투룸,쓰리룸10개
매가 6억(준공완료)
월수익 500만

★수원지구 상가 4층 중 3층 매매 (85평)★
모아엘가 APT후문 바라앞
매가 3억3천(현재 40평 임대중)
용자 2억5천 보 1천70만

★수원지구 1층 상가 임대 (17.5평)★
1층 보증금 3천 월 130만원
(현재 부동산 운영중)

기타물건 접수 (1억~100억)

☎062)952-5584
H.P. 010-6670-9800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 (보1억3천,월600만 포함)
- * 도천동 신축상고 대지2,500㎡,건평500㎡ 17억
- * 세하동공장 대지1,499㎡,건평234㎡ 6억8천
-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월800만 대출 9억5천),직영 월천만수입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 상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9억
- * 나주 혁신도시인근 토지 7,800㎡(2,400평) 3.3㎡당 80만원
- * 신창동 생산복지 전 1,980㎡ 매 6억5천
- * 세하동 자연복지 담 5,500㎡ 매6억6천
- * 완도군 약산면 토지 11,000㎡ 매 8억4천
- * 장흥군 용산면 토지 101,851㎡ 매 6억(조정가)
- * 해보면 2차선도로변 담 1,245㎡ 매9천5백만

기타

- * 광산구 본덕동 주유소 매 7억(보 1억,월 350만)
-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금메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 주월동 대지 2,000㎡, 건물 2,020㎡. (수익률 10%) 대출 16억5천포함, 매매가 38억.
-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 신창동 대지 488㎡, 건물 966㎡ 매매가 15억 (공실없음)
-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토지 매매

-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 광산구 수원동 수원자동차매대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 나주시 부북동 2차선 도로점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금메 비싼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급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초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환상의 섬
단독(해남군소재)

평수
약 2000평
계획관리

차량진입, 가로등,
선착장, 방파제 설치됨

100%개발가능
(주택, 펜션, 기타 등)
주변 별장, 단독주택,
민가, 펜션있음

매가
평당 30만원
(협상가능)

◎주인 직매◎
010-9247-9240